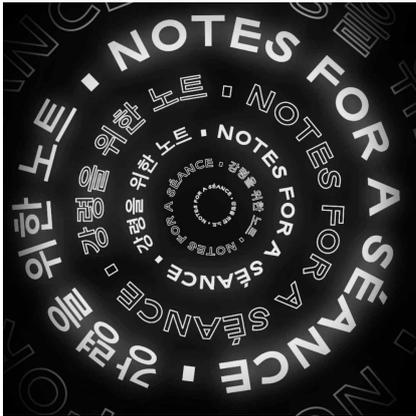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기획의 방향 발표 사전프로그램 II 《강령을 위한 노트》 안내



SMB13 사전프로그램 II 《강령을 위한 노트》 그래픽 아이덴티티, 2024. 디자인: 다니엘 레이바

제 목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사전프로그램 II 《강령을 위한 노트》
시 간	2024.11.30.(토) 1PM - 6PM
장 소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지하층 세마홀
종 류	발표와 스크리닝
발 표	SMB13 예술감독팀 안톤 비도클, 할리 에어스, 루카스 브라시스키스
작품 상영	구보타 시게코, 마야 데렌, 브루스 코너, 샤나 몰튼, 인주 첸, 조던 벨슨, 케네스 앵거, 펠린 탄과 안톤 비도클

- 2025년 8월 개막하는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SMB13)의 기획의 방향과 개념을 소개하는 사전프로그램 II 《강령을 위한 노트(Notes for a Séance)》 개최
- SMB13 예술감독팀 안톤 비도클(Anton Vidokle), 할리 에어스(Hallie Ayres), 루카스 브라시스키스(Lukas Brasiskis)의 죽음, 예술과 영성의 관계, 미술사에서 있었던 강령적 실천, 테크노 신비주의에 관한 발표와 함께, 각각의 주제에 상응하는 영상 작품 총 8점 상영으로 구성된 자리
- 깨어있는 삶과 인간 너머의 세계와의 관계를 강조하며, '강령으로서의 비엔날레 전시'를 제시

- 서울시립미술관(관장 최은주)은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사전프로그램 II 《강령을 위한 노트(Notes for a Séance)》를 개최한다. 본 프로그램은 내년에 개막하는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의 주제를 발표하는 자리로 2024년 11월 30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진행된다.
- 서울특별시와 서울시립미술관이 주최하고 운영하는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는 2000년 ‘미디어_시티 서울’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여 지난 27년 동안 도시 서울과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 미술의 동시대성과 실험성을 주목하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본 비엔날레는 1996년부터 개최된 ‘도시와 영상’에서 서울과 미디어와 관련한 사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고, 이후 2년마다 열리는 비엔날레 형식으로 시대와 공명하는 다양한 생각과 활동을 담아왔다.
- 본 사전프로그램은 지난 10월 국제 공모를 통해 선임된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예술감독팀 안톤 비도클(Anton Vidokle), 할리 에어스(Hallie Ayres), 루카스 브라시스키스(Lukas Brasiskis)가 다가오는 비엔날레에 관한 기획적 상상을 중심으로 비엔날레의 주요한 개념과 방향을 소개하는 자리이다.
- 강령(séances)은 영적 매개를 통해 생(生) 너머에 존재하는 세계와의 접속에 관한 열망을 은유하며, 특히 급속한 사회적 변화가 전개되던 초기 모더니즘 시기에 유행하였다. 산업 사회의 기계화, 조직화, 합리화가 가중되면서 사람들의 스트레스와 소외감이 증가하였고, 이와 같은 공동체 위기의 징후는 감정적이고 상상적인 대안으로서 영성주의, 오컬트, 신비주의, 혼합 종교에 관한 대중적

관심의 폭발적 증가로 이어진다. 그리고 강령에 관한 여러 실천과 개념들은 많은 전위 예술가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 지난 20세기에 생겨났던 다양한 형태의 의례들, 예를 들어 영화 상영, 정신분석 세션, 실험 연극 등이 모두 일종의 ‘강령’으로 일컬어져 왔다(‘강령’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얹기’라는 뜻이 된다). 방향감각의 상실, 걱정과 불안으로 설명될 수 있는 오늘날의 충격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작가들이 다른 세계와의 접속에 열망을 갖는 것이 크게 놀라운 일은 아니다.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예술감독팀은 현재의 순간을 이해하기 위해 오컬트, 신비주의와 영성의 전통을 바탕으로 근현대 예술 실천의 지도 그리기를 시도하고자 한다.

□ SMB13 예술감독팀은 깨어있는 삶과 인간 너머의 세계와의 관계를 강조하며 '강령으로서의 비엔날레 전시'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 예술, 사회, 영성 사이의 역사적 연관성에 중점을 두고 기술과 신비주의 전통의 교차점에 있는 예술 작품과 실천을 연구하고 있다.

- 마술적이고, 신성하며, 신비로운 특성을 가진 이미지와 사물의 역사는 인류의 문명만큼 오랜 시간 동안 풍요롭게 전개되었다. 동굴 벽화부터 스키타이의 돌 토템, 이콘(성화), 성찬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물과 재현은 인간 너머의 세계로부터 들려오는 목소리와 힘을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져 왔다. 모더니즘 시기 이후부터는 작품을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하는 방식이 다소 줄어들었지만, 여러 미술적 실천과 글에서 우리는 인간 세상과 공존하는 또 다른 세계로의 접근에 관한 깊은 관심을 계속해서 감지한다.
- 따라서 이러한 강령적 실천은 자본주의, 제국주의, 가부장제, 백인 우월주의 등 우리 현실의 구조로부터 해방을 추구한다. 다가오는

비엔날레 전시에는 페미니즘, 기후 정의, 탈식민주의 담론과 반자본주의를 다루는 작품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러한 실천들은 모호함이나 반동주의를 추구하지 않으며, 기술과 반합리주의의 결합을 방해할 만큼 과학적 탐구를 무시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경향을 어떤 하나의 관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산업 자본주의의 착취 논리를 거부하는 ‘영혼의 기술(technology of the spirit)’에의 열망일 것이다.

□ 본 프로그램에서는 비엔날레에 관한 예술감독팀의 발표와 더불어 브루스 코너, 마야 데렌, 조던 벨슨, 샤나 몰튼, 구보타 시게코, 인주 첸 등 작가들의 작품 상영이 있을 예정이다.

- 발표와 함께 상영되는 영상들은 죽음과 꿈에 관한 탐구, 죽음을 돌아보며 고통을 극복하는 치유와 명상의 과정, 불멸에 관한 인류사적 욕망, 시간의 형태, 동양 철학과 영성, 사이키델릭 문화, 미국 선주민과의 초현실적 여행, 테크노 신비주의적 의례 등을 살펴보며 비엔날레의 주제를 뒷받침하는 사례로서 제시된다.

- 본 프로그램은 11월 18일(월)부터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사전프로그램 웹사이트 mediacityseoul.kr에서 예약할 수 있다.

□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의 세부 내용과 참여 작가는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발표된다.

○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홈페이지 및 소셜 미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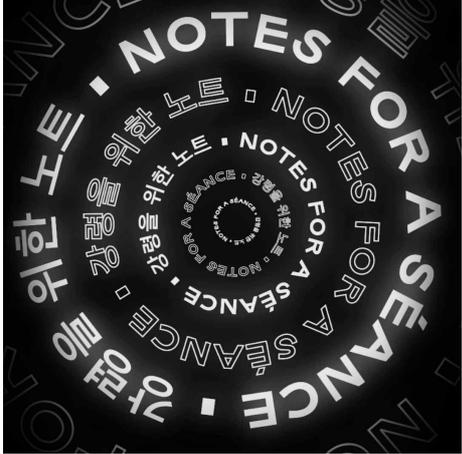
홈페이지 <https://mediacityseoul.kr>

인스타그램 [instagram.com/seoulmediacitybiennale](https://www.instagram.com/seoulmediacitybiennale)

페이스북 [facebook.com/mediacityseoul](https://www.facebook.com/mediacityseoul)

유튜브 [youtube.com/SeoulMediacityBiennale](https://www.youtube.com/SeoulMediacityBiennale)

(붙임 1) 주요 이미지 ※ 이미지를 사용할 때 정확한 크레딧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지	크레딧
	<p>SMB13 사전프로그램 II 《강령을 위한 노트》 그래픽 아이덴티티, 2024. 디자인: 다니엘 레이바</p>

(붙임 2) 프로그램 시간표

13:00-13:10 소개

정소라, 서울시립미술관 학예연구부장

13:10-14:45 1부 죽음, 예술, 영성

안톤 비도클, SMB13 예술감독팀

상영작품

케네스 앵거, <죽음>, 2009. 52초

인주 첸, <옳고 그름의 생각 너머에 들판이 있다. 그곳에서 당신과 만나리라.>, 2023. 16분

펠런 탄과 안톤 비도클, <길가메쉬: 심연을 본 그녀>, 2022. 47분

14:45-15:00 휴식

15:00-16:05 2부 비가시성의 중재: 정신적이고, 시네마적이며, 정신분석학적인 강령

루카스 브라시스키스, SMB13 예술감독팀

상영작품

마야 데렌, <변형시간의 의례>, 1946. 15분. 무음

조던 벨슨, <사마디>, 1967. 5분

브루스 코너, <버섯을 찾아서>, 1959-67/1996. 14분

16:05-16:15 휴식

16:15-17:30 3부 동시대 테크노 신비주의와 불협화음

할리 에어스, SMB13 예술감독팀

상영작품

구보타 시게코, <나바호 스카이를 위한 비디오 걸즈와 비디오 송즈>, 1973. 26분

샤나 몰튼, <마음의 장소 사유의 흐름>, 2014. 12분

17:30-18:00 질의응답

(붙임 3)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소개

2000년 ‘미디어_시티 서울’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는 지난 27년 동안 도시 서울과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 미술의 동시대성과 실험성을 주목하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비엔날레는 1996년부터 개최된 ‘도시와 영상’에서 서울과 미디어와 관련한 사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고, 이후 2년마다 열리는 비엔날레 형식으로 시대와 공명하는 다양한 생각과 활동을 담아왔습니다.

그동안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는 동시대의 긴급한 사안들을 주목하는 기획으로 에디션마다 평균 50여 명/팀의 작가를 초청하였고, 140,000여 명의 국내외 관람객이 방문하였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을 중심으로 도시 내의 여러 장소를 경유하며 개최되는 전시, 유무형의 프로그램, 다양한 형태의 온·오프라인 출판물은 앎과 경험의 사용자이자 참여자로서 다양한 관객을 초대합니다.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는 매해 비엔날레 전시 주제와 공명하는 출판작을 선별하여 서울시립미술관 소장품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35점의 비엔날레 출판작이 미술관 소장품으로 등록되어 비엔날레의 역사와 함께 변화해온 미디어아트와 형태, 경향, 개념을 기록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와 더불어 단계별로 선별·수집하여 디지털로 전환한 지난 비엔날레의 주요 데이터는 내년에 오픈하는 통합 웹사이트에서 공공 자산으로 유통될 예정입니다.

2022년부터 준비연도에 개최되는 사전프로그램(프리비엔날레)은 비엔날레의 소장 자원을 바탕으로 미디어에 관한 개념적 연구, 비엔날레의 정체성과 지역적 연계성을 탐구하며, 본행사의 바탕이 되는 생각과 경험을 축적합니다. 전시, 출판, 스크리닝, 심포지엄, 워크숍 등 다양한 형태의 사전프로그램에서 비엔날레의 기록은 과거에만 머물지 않고, 동시대적 실험과 사유를 위한 미적 참여, 생산과 매개의 미디어가 됩니다.

기본 정보

- 사업담당자: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프로젝트 디렉터 권 진
(02-2124-8975/ nakwonjin@seoul.go.kr)
- 홍보문의: 주무관 권대희(02-2124-8945 / kwon.daehee@seoul.go.kr)

이미지 다운로드 방법

- 서울시립미술관 웹하드
주소: <http://sema.webhard.co.kr>
아이디: semapress
비밀번호: sema
- 이미지 다운로드([내리기전용] 폴더 →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폴더
→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사전프로그램 II] 폴더